양재우면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시 개포4동(포이동) 포함에 관한 청원

심 사 보 고 서

접수번호	54

2016. 12. 6.
기 획 경 제 위 원 회

Ⅰ. 심사경과

가. 청원자 : 김성태 외 13개 직능단체 대표 13명

나. 소개의원 : 김현기(행정자치위원회)

다. 접수일자 : 2016년 11월 8일

라. 회부일자 : 2016년 11월 14일

마.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 제8차 기획경제위원회(2016.12.6.)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

Ⅱ. 청원요지(서울특별시장)

○ 서울시는 2016. 8.3 양재, 우면, 개포동 일대 300만㎡에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기술이 결합된 혁신 거점 조성계획을 발표하며 이 일대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해 R&CD 공간을 확충하고, 규제를 완화해 일자리 15,000여개를 창출하는 '양재 Tech+City 조성계획'을 공표한 바 있으며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에 이 일대 전체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 함. 이에 양재2동과 동일 생활권이며 벤쳐기업의 발상지인 옛 포이동(개포4동)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포함하여 지정해줄 것을 요청함

Ⅲ. 청원소개의원 요지(소개의원:김현기의원)

○ 서울시는 2016. 8. 3. 양재동, 우면동, 개포동 일대 300㎡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여 R&CD 공간을 확충하고 "양재 Tech-City 조성 계획"을 공표하였음.

○ 서울시는 "양재 Tech-City 조성 계획"에 개포4동(옛 포이동)을 포함하였으며 개포4동은 양재2동과 동일한 생활권이라는 점과 개포4동이 벤처기업의 발상지로의 역사와 상징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열악한 개포4동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특화발전지구 지정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Ⅳ.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병국)

○ 서울시는 「양재 Tech+City 조성계획」을 통하여 양재·우면 지역을 4차 산업혁명 시대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가 결합된 서울의 대표 도심형 혁신거점으로 육성할 예정임.

○ 「양재 Tech+City 조성계획」의 구체적 실현 방안은 제7대 실행전략과 4대 권역별 공간계획이며, 제7대 실행전략으로 ①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② 지구단위계획 수립 ③ 유통업무설비 해제 허용 ④ 청년문화 특화공간 조성 ⑤ 교통·보행환경 개선 ⑥ 맞춤형 앵커시설 조성 ⑦ 지원조직 및 거버넌스, 프로그램 운영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4대 권역별 공간계획은 양재·우면 지역을 ① R&CD 코어권역, ② 지역특화혁신권역, ③ 지식기반상생권역, ④ 도시지원복합권역 4대 권역으로 나누어 7대 실행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음.

< 양재·우면지구 _ 권역구분 및 공간계획 >

○ 「양재 Tech+City 조성계획」에 따라 서울시는 해당 지역에 임시적으로 앵커시설을 조성하고 양재·우면 일대 부지 전체를 내년 상반기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음.

-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되면 R&CD 연구시설을 확충하거나 공공 앵커시설을 도입하는 경우 용적률·건폐율을 최대 150% 완화하는 등 규제가 일부 완화됨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하고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특구계획의 승인 및 특구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1)]

---

1)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조(특구의 지정신청)** 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 현재 서울시는 내년도에 양재·우면 지역의 특구 지정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자치구인 서초구·강남구와 협의를 추진 중이고 서초구는 지역특화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강남구는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서초구와 공동신청을 계획하고 있음.

○ 한편, 서울시의 「양재 Tech+City 조성계획」에 따르면 지역특화혁신권역으로 이미 개포 4동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나 스타트업을 위한 공간을 확충하고, R&CD 특구로서 장소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공공사업(가로 전시장, 이벤트, 가로예술, 창업카페 조성 등)을 추진할 예정임.

○ 또한, 도시계획국에서 실시한 「양재·우면 R&D 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15.4 ~ '16.8)에 따르면 개포 4동은 양재 2동과 함께 중소기업이 집중적으로 입지하고 있으며 중소R&D기업 스케일업(Scale-Up) 강화, 특화거리 조성 및 상징물 설치 등의 육성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음.

○ 이처럼 개포 4동이 「양재 Tech+City 조성계획」에 따라 지역특화혁신권역에 포함시키는 것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서울시도 「양재 Tech+City 조성계획」에 따라 특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서초구와 강남구의 공동신청 추진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등 본 청원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본 청원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구지정 신청권자는 기초자치단체이고 지정권자가 중소기업청이므로 서울시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청장과 서초구청장 및 강남구청장에게 본 청원의 결과를 이송하여 개포 4동이 포함된 특구지정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음.

Ⅴ.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Ⅵ. 토론요지 : 「없음」

Ⅶ.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Ⅸ. 의견서 : 별첨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하 "특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특구지정을 신청하고,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특구계획의 승인 및 특구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9조(특구의 지정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협의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건 명	양재·우면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시 개포4동(포이동) 포함에 관한 청원	
청 원 인	주 소	강남구 개포4동 현대2차(아) 213동 101호
	성 명	김 성 태
소 개 의 원	김 현 기 (인)	
소개 년월일	2016. 11. .	

ㅇ 서울시는 2016. 8. 3. 양재동, 우면동, 개포동 일대 300만㎡에,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된 혁신 거점 조성계획을 발표하며, 향후 이 일대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해 R&CD 공간을 확충하고, 규제를 완화해 일자리 15,000여개를 창출하는 내용의 '양재 Tech+City 조성 계획'을 공표한 바 있음.

ㅇ 이를 위해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에 이 일대 전체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며, R&CD 코어 권역(aT센터일대), 지역특화혁신권역(중소 연구소 밀집 양재2동, 개포동 일대), 지식기반상생권역(대기업 연구소 일대), 도시지원복합권역(양재IC 일대) 등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이 특구에서 R&CD 연구시설이나 공공 핵심 시설을 조성하면 용적율과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규제를 완화할 방침임.

ㅇ 따라서 서울시는 '양재 Tech+City 조성 계획'에 개포4동(옛 포이동)을 포함해 발표했으며, 다음과 같은 취지와 사유에서 '양재·우면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시 개포4동(포이동)을 포함을 요구하는 청원은 다음과 같이 합리적이며 타당성을 갖추고 있음.

첫째, 개포4동과 양재2동은 동일 생활권임. 강남구와 서초구는 분구 전 같은 강남구였으며, 지금도 개포4동(옛 포이동)은 인근 양제2동과 이웃처럼 살고 있고, 주거형태도 단독과 다세대 주택 등으로 동일하게 형성되어 있는 동질감을 갖고 있음. 이번에 서울시 계획에 우리 개포동(옛 포이동)을 포함시킨 것은 함께 지역의 균형발전과 상생발전을 염원하는 우리 주민들의 요청이 적극 반영된 결과임.

둘째, 벤처기업의 발상지가 바로 옛 포이동(개포4동)임. 1990년대 후반부터 멩렬한 벤처기업의 바람이 불 때, 포이동(개포4동)은 자본이 부족한 젊은 벤처 창업가들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이 곳으로 결집했고, 여기서 성공하여 테헤란로 진출해 대한민국의 벤처산업의 신화를 이룩했음. 그래서 명명된 이름이 '포이밸리'였음.(서울연구원 연구 보고서 참조)

셋째, 개포4동, 낙후된 지역에서 탈피해 인근지역과 동반성장해야 함. 강남구 22개동 중에서 개포4동은 동세가 가장 빈약하고 발전이 뒤쳐진 지역의 대명사임. 교통 불편은 물론 제대로 된 시설도 전무한 강남구의 외딴 섬 같은 동네임. 오직하면 2007년도에 법정동인 포이동의 명칭을 개포동으로 변경하는 요구를 정부에 했겠음? 그럼에도 이 지역 주민들은 좌절하지 않고 지역발전과 주민 자긍심을 높이는 일이라면 매사에 열심히 앞장서고 적극적임. 최근 개포4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새마을 사업 평가 서울시에서 1등을 하였으며, 전국 우수사례 발표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결과도 이와 일치함.

ㅇ 이에 청원의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본 청원을 소개함.

<서식4-6-3> 청원요지서

청 원 요 지 서

접수번호	54		접 수 연 월 일	2016. 11. 8
청 원 인	주 소	서울시 강남구 개포4동 현대2차(아) 213동 101호		
	성 명	김성태 외 13개 직능단체 대표 13명		
소개의원	김 현 기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건 명	양재·우면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시 개포4동(포이동) 포함에 관한 청원			
소 관 위 원 회	기획경제위원회			

○ 서울시는 2016. 8.3 양재,우면,개포동 일대 300만㎡에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 기술이 결합된 혁신 거점 조성계획을 발표하며 이 일대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해 R&CD 공간을 확충하고, 규제를 완화해 일자리 15,000여개를 창출하는 '양재 Tech+City 조성계획'을 공표한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에 이 일대전체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 함

이에 양재2동과 동일 생활권이며 벤쳐기업의 발상지인 옛 포이동(개포4동)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포함하여 지정해줄 것을 요청함